

# 중대 양보 vs 단계적 보상... 北 비핵화 전략은?

### WSJ 북미회담 접근법 예측 “비핵화 프로세스 직행 요구 대신 종전선언·수교 제안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서 초기에 ‘중대 양보’를 주고받는 ‘빅뱅’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함에 따라 이 방식의 성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WSJ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5~6월로 예상되는 세기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폐기를 위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폐지 전까지 제재완화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보도는 북한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한 뒤 나온 것이다.

이 결정을 놓고는 북한이 핵 능력을 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단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며 향후 핵군축 협상을 노릴 것이라는 미 조야의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 게 사실이다.

이러한 기류에서 WSJ이 전한 ‘빅뱅’ 접근법은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를 둘러싸고 지난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다 결국 파탄에 이르거나 전철을 답습하지 않는 일종의 ‘일괄타결’을 겨냥한 해법으로 풀이된다. 즉, 양측이 돌이킬 수 없는 통 큰 양보를 처음부터 주고받음으로써 이른바 ‘동결의 덫’(freeze trap)에 걸려들지 않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프로세스로 직행하는 구상이다.

북핵 전문가들은 그 방안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측에 CVID를 수용토록 하고 그 시점을 적어도 1년 내로 못 박도록 요구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울러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이뤄져 항구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또 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전환, 북미 수교 등 북한이 거부하기 힘든 양보를 준다든 것이다.

이처럼 양측이 초기에 물러설 수 없는 중대한 양보를 주고받아야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와 같은 ‘미래의 핵’은 동결하면서도 지금까지 개발한 수 십 기(基)의 핵무기와 핵물질 등은 보유하며 국면마다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핵 폐기 날짜를 못 박도록 하는 게 내 목표”라고 천

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대답을 듣지 못하면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실제 북미 협상은 초기 단계의 ‘중대 양보’가 이뤄진다면 이를 쉽게 반복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지만 최종 출구로서 CVID에 이르는 실제적 협상은 보상 성격의 단계적 함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가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다음 단계의 보상조치를 멈추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 계정에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북한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밝힌 것도 중대 양보를 주고받는 ‘빅뱅’ 접근과는 별개로 실제 비핵화 과정은 상당한 살바 싸움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현종의 환관 고력사

고력사(高力士, 684-762)는 현재의 광둥성에 해당하는 고주 양덕 출신이다. 환관으로 현종의 측근이 돼 영향력을 행사했다.

본명은 풍원일로 698년 환관으로 입궁했고 환관 고연복의 양자가 되어 성명을 고역사로 바꾸었다. 일찍이 임치왕 이용기의 측근이 되었다. 중종을 독살한 위황후 일파를 제거하고 태평공주 세력의 모반을 진압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용기가 712년 황제가 되니 커다란 권력을 쥐게 되었다. 그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금요대장군 정백헌은 그의 생모가 사망하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대성통곡하였다. 그가 높은 관직을 제수받았음은 물론이다. 장안의 보

를 “태자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이와 같은 일로 성심을 수고롭게 하십니까. 만아들을 밀어서 세운다면 누가 감히 쟁론하겠습니까?” 이어가 태자로 결정되니 훗날의 속종이다. 재상 장열의 퇴임에도 관여했다. 장열이 어려움에 처하자 형인 장광이 동생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귀를 잘라가면서 황제에게 호소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가 나서서 현종에게 용서를 빌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천보 3년(744) 황제는 그에게 말하기를 “집이 장안을 나가지 않은지 10년이 되는데도 천하에 아무 일이 없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이임보에게 맡기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그가 답하기를 “천하의 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는 것인데, 그의 위

## 위황후·태평공주 세력 이어 양귀비 제거

수사를 재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는 비용을 보전할 방법으로 보수사의 새 종을 한번 치는데 10만냥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임을 얻기 위해 많은 관리들이 앞다투어 종을 쳤다. 한 관리의 무려 20여 차례나 쳤다고 한다. 환관하면서 은밀히 처를 맞았다. 하급관리 여현오의 딸이 아들답다는 말을 듣고 처로 삼았다. 이후 여현오 집안이 크게 번성했다. 불행히도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사망 소식에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추모행렬이 몰려들었다. 발인하는 날 그의 집에서 발인장소까지 추모하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현종의 두터운 신임하에 백관의 상주문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웬만한 조정사는 그의 선에서 처리되었다. 표기대장군의 직위에 올랐다. 현종은 감공제도를 만들어 환관을 파견해 지방군대를 감시하였고 중앙의 군대 통수도 환관에게 맡겼다. 그는 현종의 후계자 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태자 이영이 죽자 재상 이임보는 수왕 이모를 태자로 세울 것을 권하였다. 황제는 내심으로 충왕 이여를 마음에 두었다. 그러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었다. 잠도 잘 못자고 식사량도 줄었다. 고역사가 황제에게 그 이유를 묻자 황제는 “너는 우리 집안의 오래된 노복인데 어찌 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느냐?” 고역사가 답하기

세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누가 감히 다시 논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황제가 기뻐하지 않자 “신이 정신병이 들어 망령된 말을 하였으니 마땅히 죽을 죄를 족습니다.”고 사죄하였다. 이후 후궁이 천하의 일을 깊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740년 양귀비를 황제의 후궁으로 맞이하도록 했다. 양귀비 일가의 세상이 되었다. 먼 친척오빠 양국충은 재상이 되고 40여 관직을 겸직하였다. 755년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 장안 외곽 동관에서 정부군이 참패해 시천방면으로 피난에 나섰다. 장안 서쪽 마외역에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재상 양국충을 죽이고 양귀비의 처형을 요구했다. 황제는 “귀비는 항상 깊은 궁궐에 있었는데 어찌 양국충의 모반을 알았겠는가!” 고역사가 말하기를 “귀비는 진실로 죄가 없지만 장수와 병사들이 양국충을 죽였는데 귀비가 폐하의 옆에 있으니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고역사가 나서서 불당에서 귀비를 목매어 죽게 하였다. 756년 현종이 물러나고 태자 이여가 속종으로 즉위했다. 그는 속종의 환관 이보국의 탄핵을 받아 호남성 무주로 유배되었다. 현종이 762년 세상을 떠나자 7일동안 음식을 끊고 슬퍼하다가 죽었다. 후일 태종은 그의 충성을 높이 사 양주대도독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 북한 교통사고 中 관광객 32명 사망·2명 중태

### 북한 주민 4명 사망

북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중국인 관광객 3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북한 주민 4명도 숨졌다. 루강(陸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교통사고에 대해 “어제 저녁 북한 황해북도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중국인 32명이 숨지고 북한 주민 4명도 사망했으며 이밖에 2명의 중국인이 중상으로 위태로운 상태”라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우리는 사망한 동포와 북한인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사상자와 사망자 유족에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중국중앙(CCTV)은 이번 사고를 보도하면서 밤중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버스가 전복돼 심하게 부서진 장면을 공개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당국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북도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 많은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 알려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사진=중국중앙TV 화면 캡처)



## 베트남전 종전 43주년... ‘한국군 학살’ 정부 사과 촉구

“저는 한국군에게 희생된 하미 마을 사람 135명의 뜻으로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주시시오.”

2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선 베트남 광남성 출신 응우옌티탄(60·여)씨는 베트남어로 미리 써온 발언문을 담담한 목소리로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광남성 하미 마을에 사는 그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한국군에 의해 어머니와 남동생, 숙모, 두 사촌 동생을 하루에 잃었다. 한베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은 하미 마을에서만 135명을 학살했다.

응우옌티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학살사건에서

살아남아서 50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 서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난 한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간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염려했다. 그러나 학살 당시 나를 구하고 가족과 이웃들의 처참한 시신을 수습했던 오빠가 ‘억울하게 죽은 가족을 위해 한국에 가서 증언하는 게 살아남은 사람의 도리’라고 해서 오게 됐다”고 전했다.

응우옌티탄은 “우리는 살아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한 피해자들 대신에 다시 한 번 한국 국민에게 호소한다. 한국 정부의 사과를 받고 싶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 달라”고 협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증언을

들어주고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예전에 한국은 내 가족을 잊어간 무서운 나라였지만 이제 따뜻한 친구도 있는 나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 종전 43주년(4월 30일)과 한국군 광남성 학살 50주기를 맞아 19일 국회 기자회견, 21~22일 시민평화법정 등 연속 행사를 치르고 이날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단은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해 공식 사과를 촉구했으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면서 “한국 정부는 먼 길을 달려와 증언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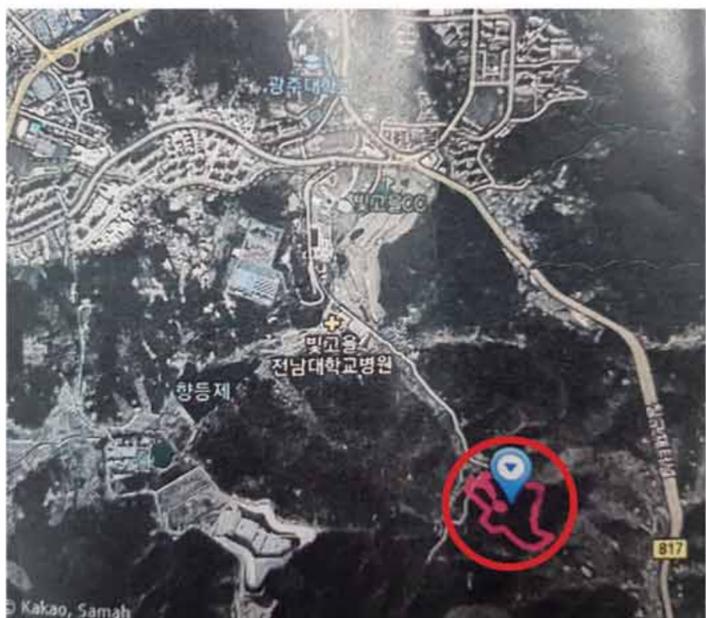


23일 서울 중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학살 피해자인 풍니마을의 응우옌티탄 씨에게 회견 참석자들이 사과와 위로의 꽃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0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8-1230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